

“반역사·반민주공화국 세력 반드시 제압하자”

이재명, 화순·강진·영암서 ‘골목골목 경청 투어’
“영터리 후보교체…국힘·金, 내란 석고대죄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 텃밭으로 불리는 전남 지역에서 유권자를 만나는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이날 화순을 시작으로 강진·해남·영암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후보는 화순에서 “모든 국가 역량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쓰이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반역사세력, 반민주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고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오늘은 1894년 동학농민군이 최초로 관군을 싸워 이긴 황토현 전투 승리의 날로, 동학 혁명의 날”이라며 “모두가 어우러져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꿈꿨던 동학농민군이 첫 승리를 한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그런 대동세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1980년 5월 모든 치안 인력이 철수한 뒤에도 열흘 동안 아무런 절도와 폭

력 없이 주먹밥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를 느끼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그런 세상을 만들기 쉽지 않았지만, 국민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 국민이 국가이고 국가가 국민인 나라를 민주공화

국이라 불렀다”며 “그런 민주공화국을 향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에도 이겼고 지금도 내란과 싸워 이기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이고, 이재명은 여러분이 뽑아서 쓰는 일꾼일 뿐”이라며 “압도적인 투표, 압도적인 선택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여러분이 만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강진을 찾아 다산 정약용 선생을 거론하며 ‘탈이념’의 실용 노선과 소통·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다.

강진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한 이 후보는 “강진 하면 역시 정약용이 떠오른다”며 “실용주의자인 정약용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내란 끝나지 않았다. 2차 내란이 있었고 3차 내란이 진행 중이다”며 “그 진압의 끝, 진짜 시작은 바로 6월 3일이다. 완벽하게 내란을 진압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하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해남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평생 탄압 속에서도 공부하고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심초사했다”며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지도 선비의 정신을 잊지 마라”, ‘서생의 문제의식을 잃지 않되 상인의 현실감각을 실현하는 게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박용진 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열리고 있다. 배근

정치다’라고 했는데 맞나”라고 시민들에게 물었다.

이어 “6월 3일 힘을 합쳐 국민이 존중받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영암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된 데 대해 “그렇게 영터리후 후보 교체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선출된 후보가 됐다니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헌정 파괴 행위에 동조한 것

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 내란을 비호하는 후보가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될 수 있겠나”라며 “국민의 힘 또는 김 후보가 해야 할 제일 첫 번째 일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들이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먼저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경청 투어는 12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을 하루 앞두고 이 후보가 마지막으

로 지방 소도시를 순회하는 일정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일 경기 북부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을 시작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의 ‘동해안 벨트’, 충청·전북, 영남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찾기 어려운 소도시를 중심으로 경청 투어를 진행해왔다.

이날까지 이 후보가 경청 투어로 방문하는 51개 소도시 가운데 18곳은 시, 33곳은 군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NEWS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민주당 잘사니즘 체육위원회
18개 시·도 대표 정책 협약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소속 체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책협약식 및 6·3 대선 선대위 출범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출범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조계원 의원 (여주시을) 과 강신성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비롯해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박홍근, 김교흥, 유동수, 강득구, 임오경, 장경태 국회의원, 이우중 선대위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체육회 전 전전선수총장을 지낸 장재근 수석부위원장, 정책자문단공동위원장인 조현재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비롯해 체육위원회 산하 12개 분과 대표와 18개 시·도 지방체육위원회 대표 등 25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장애인체육계를 대표해 한민수 위원장 그리고 이동현 2030청년체육인 대표, 김동규 학생선수학부모연합 대표, 류중혁 노인체육위원장이 대표는 결의문 발표를 통해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 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체육인들이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조계원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K-스포츠가 큰 힘을 발휘해왔듯 새로운 정부에서 마

음껏 발휘해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정성호·민형배, 광주 민심 경청투어 마쳐

AI·청년·미래정부 방향 물어

민형배 K-이니셔티브위원장(광주광산을 국회의원)은 친명 좌장인 정성호 국가인재위원장과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광주 전역을 돌며 ‘민심 경청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주 지역 ‘민심 경청투어’는 차기 민주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과 호남 민심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청년, 여성, 시민사회, 종교계, 의료계, 문화예술계 등 14개 분야의 시민들과 직접 만나, 지역 현안과 사회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지난 9일에는 광주시장·구청장 오찬을 시작으로 △AI산업 산학연 간담회(광주AI데이터센터) △여성활동가 간담회 △불교계 지도자 만찬 △의사회 및 시의원과의 대화이 이어졌다.

광주 AI 핵심 기관들의 참여도 눈길을 끌었다. △인공지능사업단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인공지능산학연협회 △한국전



정성호 국가인재위원장과 민형배 K-이니셔티브위원장이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광주 전역을 돌며 ‘민심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등이 ‘AI산업 산학연 간담회’에 참석해 광주 AI데이터센터를 돌아보며 AI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10일에는 △광주경총 간담회 △청년 간담회(광주시민회) △시민사회 원로 간담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간담회 △아이 키우는 엄마들 간담회 △광주지역 언론 간담회가 열렸다.

특히 청년 간담회와 육아 간담회에서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이어지는 울인원 케어 공약’ 아이디어가 제시되는 등 ‘민심 경청투어’ 본연의 취지를 살렸다는 현장의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광주는 늘 새로운 민주정부의 출발점”이라며 “사람과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인재 영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이 누구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AI와 돌봄, 여성과 청년, 문화와 일자리 등 광주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진짜 대한민국의 비전을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가인재위원회와 K-이니셔티브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향후 정책 설계와 공약 개발, 인재 발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국힘, 사상 초유 후보교체 소동 ‘후폭풍’

지도부 주도 당원투표서 부결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러던 작업이 11일 전면 중단됐다.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 지도부의 ‘강제 단일화’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결과다. 국힘 지도부가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한 지 약 24시간 만에 무위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경선에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내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하자, 지난 9일 밤부터 본격적인 후

보 교체 절차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9시부터 12시간에 걸쳐 한 후보로의 교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당 지도부는 투표를 실시할 때만 해도 무난한 가결을 예상했다.

그러나 밤 11시에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확인한 투표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구체적인 수치는 비공개에 부쳤으나,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김 후보는 즉각 당 대선 후보 지위를 회복했고, 한 후보로의 교체를 확정하기 위

해 이날 오전 8시로 소집 공고했던 전국 위원회는 취소됐다.

지난 9일 밤부터 전날 새벽까지 밤을 꼬박 새우가며 비대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 선출 무효화, 새 후보자 선출 의결, 한 후보 입당, 한 후보 재선출 등의 안건을 일사천리로 의결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같은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계엄·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이미 불리한 구도에 놓인 국민의힘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두고 이같은 초유의 파동이 벌어진 데다, 그 후폭풍까지 겹치면서 대선을 제대로 치르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광주 살마?

이 앱 들어봤어?

맛집·카페·핫플 광주의 다양한 가게 한눈에

잇샵으로 핫플추천, 쿠폰으로 혜택받자!

모두의 쿠폰, 잇샵